세계적 경제위기와 지역의 대응

전명숙 (한국노동연구원 국제협력실장)

2008년 하반기부터 전개되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각 국가와 지역의 경제를 위협하는 가운데, 대량실업에 따른 고용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각 국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의 산업구조 및 역량에 따라 차별적인 위기대응책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위기가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 국가 내에서 같은 시점에서 전개된다 할지라도 이러한 위기가 동일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내제된 주체들의 역량과 생산방식에 따라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 서구에서는 이미 1970년대 말부터 수많은 연구자들과 정책입안자들에 의해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특정 지역은 발전을 하고, 또 다른 지역은 실패를 하게 되는 등 지역 특정적인 발전전략이 있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연구가 촉발하게 된 계기는 '제3의 이탈리아'라 불리는 (중소기업들이 집중된) 이탈리아 중심부와 동북부 지역의 클러스터가 다른 지역이 침체를 보이는 기간에 놀라운 경제적 성장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탈리아 지역경제의 성장은 비록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집중화와 협력적 경쟁을 통해 얼마든지 효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후 이탈리아 외 지역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지역경제가 성공을 거두면서, 경제위기시 지역이 보여주는 발전전략 및 대응책에 더욱 주목하게 되었다.

기존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은 지역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은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중소규

모의 기업 밀집을 통해 성공한 지역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지역 주체들은 관련당사자들의 '상호관계를 정의하고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govemance mechanism)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지역별로 그 유형이 각각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업 및 지역발전에 필수적인 공동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뒤 보고서에서 소개되는 '제3의 이탈리아'와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 같이 잘 알려진 지역 사례는 물론 웨스트유트란드, 오요낙스 등 신생 지역경제를 포함한 실증적 사례 연구를 보면, 지역에 집적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공동대응책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기업 및 지역의 발전에 필수적인 숙련된 노동력과 교육기관, 신용(credit), 마케팅, 생산 개발과 관련한 공동의 서비스 제공 노력은 일반적인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공동 대응책은 본 보고서의 주요 사례인 미국의 WRTP에서도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다. WRTP는 극심한 국제경쟁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된 1990년대 초 기업, 노조, 그리고 공공기관이 지역파트너십을 통해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한 성공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이 사례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은 당시 미국의 많은 제조업체들이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에 기초한 경영전략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WRTP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 '하이 로드(high road)' 전략, 예컨대 노동자 훈련에 투자하고, 충분한 임금을 지불하며, 향상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생산을 재조직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방식의 경영전략에 합의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노동자와 노조 역시 기술을 개발하고 작업 재조직에 따라 증가하는 책임과 권한을 기꺼이 수용하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노사정 파트너십에 기반한 공동의 대응책 마련을 통해 WRTP는 그동안 큰 성공을 이루어 왔으며, 보고서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최근의 경제위기하에서도 지역의 주체들은 금융위기로 인한 피해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현 상황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처럼 WRTP 사례뿐 아니라 보고서에서 소개되는 독일 및 유럽의 다양한 지역경제는 결국 다음과 같은 결론을 재확인해 준다. 즉 기존에 성공적이었던 몇몇의 지역경제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지역경제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Michael Storper(1990)도 강조했듯이 지역은 다양한 내부 긴장관계 및 외부 요인에 대해 반응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적응능력에 따라 일부 지역경제는 생존하고 일부 지역경제는 퇴출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Peter Totterdill의 보고서에서 나타나듯이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경쟁 속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지역은 내외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전략적이고 공식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지역경제의 변화에 따라 혁신과 협력을 촉진하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책네트워크 및 사회적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즉 지역 주체들 사이에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공공정책의 개입 및 제도적 지원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충족해 주는 지방정부 및 사용자 조직 그리고 노조를 포함한 지역 주체들의 역할이 더욱 큰 중요성을 갖는 것이다.

결국 향후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미래 역시 본 보고서의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지역 수요에 맞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내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주체들의 협업 및 신뢰 그리고 역량 구축을 위한 전략적 대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KLI